



국군통신사령부 예하부대 대리투표 폭로와 관련해 2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원섭 일
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지켜본 이 일병 어머니 고경애(52)씨가 보안사 민간인사찰을 폭로해 수배
중인 윤석양씨 어머니 민인숙(59·왼쪽)씨 등의 격려를 받으며 밝은 표정으로 국방부를 나서고 있다.
<한겨레신문 1992. 4. 23. 15면> <변재성 기자>